

[**사 회**]

여수 어린이들 환경성 질환 심각 아토피 발병률 전국 최고

공단 인근 교실 이산화질소 농도 기준치 두배나

여수지역 어린이들의 아토피 발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환경노동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환경성 질환조사·감시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지역 2개 초등학교 249명 가운데 아토피에 걸린 적이 있거나 앓고 있는 어린이는 77명으로 조사대상 30.9%를 기록, 전국 평균 29.1%를 상회했다. 환경부가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한 대상은 여수를 비롯한 서울·이천·대

구·제주·전남 등 전국 9개 초등학교 8~10세 아동 2천495명이다. 여수지역 어린이들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학교 교실 등 주변 환경이 이산화탄소·미세먼지 등에 오염됐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조사대상인 여수지역 2개 초등학교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각기 2천528ppm, 2천960ppm을 기록, 법정기준치(1천ppm)의 두 배 이상을 나타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여수 모 초등학교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는 131μg으로 법정 기준치 100μg을 상회했다. 벤젠 농도도 5.6μg로 일본(3.0μg)과 유럽연합(5μg)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부근에 위치한 또 다른 초등학교 교실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94.7ppb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법정 기준치인 50ppb의 두 배에 이르렀다. 중금속 노출 정도도 심해 수은은 혈액 1ℓ 당 평균 2.48μg(100만 분의 1g)로 미국 성인 평균치(0.58~0.82μg)의 세 배나 됐다. 납의 혈액 농도는 2.0μg으로 전국 평균 1.9μg을 웃돌았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글은 우리의 자랑

'제 560돌 한글날' 기념식이 시민·학생·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10시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박광태 광주시장, 김원빈 광주시 교육감, 이병화 광주시 정무부시장. /위권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전교조 분회장의 자기반성 글 화제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 전교조 분회장이 학교 내 급품상납 관행 등 교육계 비리척결을 둘러싼 전교조의 몰이붙이기 식 활동을 비판하고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대반초등학교 전교조 분회장인 박병진(43) 교사는 지난 2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3보1배(三步一拜)하다 3보 후퇴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교사는 이 글에서 지난달 일선 학교장 및 교감에 대한 교사들의 급품상납 관행을 고발하고 시 교육청 주변을 돌며 3보1배했던 금호초등학교 박상철(33)교사를 격려한 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며 발문을 열었다.

박 교사는 "이번 일로 모든 선물을 뇌물 또는 상납품이 돼 버렸고, 그렇게 한 모든 교육가족은 죄인이 됐다"며 "나도 가끔 훌륭한 분들을 만나면 작은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이젠 그런 사실이 후배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봐 조심해야 하는 처지가 돼 버렸다"고 털어놓았다.

박 교사는 이어 "광주 교육계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리로 점점 더워져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며 (광주교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를 또한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전교조가 학교 관리자에게 급품을 주지 않고 더욱 자유롭다고 해서 또 이를 고발한다고 해서 국민이 전교조, 아니 우리 교사들을 바로 믿고 신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는 특히 "(전교조)는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이미지로 교원평가를 한없이 거부하고 국민이 보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성과급 투쟁에 매달리며 비리 속에서 함께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통속의 교사집단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며 "전교조가 우리 시대의 가장 신뢰받는 교육개혁집단으로서의 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1천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으나, 지난 6일 일부 반대 댓글이 올라오자 본인에 의해 삭제됐다. 박 교사는 지난 1992년 교사 임용과 함께 전교조에 가입·활동해 왔으며 지난 2004~2005년 초등 광산지회장을 맡았었다. /함태중기자 hwangtae@

“ 지나치게 강한 이미지로 교원평가 한없이 거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개혁집단 아닐 수도 ”

호남·제주 경찰 10명중 4명 “승진심사 투명하지 않다”

“승진심사 투명하지 않다”

호남·제주지역 경찰관 10명 중 4명이 현행 경찰 승진제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창일(행정자치위) 의원이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2006 국정감사 정책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현지 경찰관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1.7%가 현행 승진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능력과 실적(19.8%)보다는 인간관계나 외부청탁(26.5%)이 승진시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근무성적 평가와 근무성과와 관련, 전체의 40.3%가 '상관성이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근무성적 평가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24.3%에 불과했다. 근무성적 평가에 대해 '주관적'이라는 응답(47.1%)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16.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조사대상 경찰관의 79%는 현재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대부분 승진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사승진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해 호남·제주지역의 경우 44.7%가 투명하지 않다고 응답해 강원·충청권(30.2%), 경상권(32.1%), 서울·인천권(34.9%)보다 크게 높았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범대생 절반 교사임용 탈락

임용률 전남대 66%·순천대 50%·조선대 36%

올 광주·전남지역 사범대 졸업자의 절반만이 중등 임용고사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국회 교육위 소속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전국 사범대학·교육대학 임용고사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올 광주·전남지역 사범대 졸업자 735명 중 중등 임용고사 합격자는 360명(49%)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전남대가 237명 중 157명(66.2%), 순천대가 148명 중 75명(50.7%), 조선대가 350명 중 128명

(36.6%)이 각각 합격했다. 전남대의 합격률은 전국 43개 대학 중 경북대(6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순천대와 조선대의 합격률 역시 각각 5위와 12위로 기록됐다. 전국적으로는 올 사범대 졸업자 1만3천40명 중 3천535명(27.1%)이 합격하는데 그쳤다. 한편 광주교대의 경우 557명의 졸업자 중 523명(93.9%)이 합격해 전국 11개 교육대학 중 합격률 4위를 차지했다. 교육대학의 평균 합격률은 89.3%였다. /함태중기자 hwangtae@

2006 사범대학 졸업생 임용고사 합격률

순위	대학명	2006 졸업자수	2006 합격자수	졸업자대비 합격률(%)
1	경북대	238	165	69.3
2	전남대	237	157	66.2
3	영남대	211	110	52.1
4	광주대	607	308	50.7
5	순천대	148	75	50.7
6	부산대	379	188	49.6
7	이화여대	619	265	42.8
8	강원대	193	81	42.0
9	단국대	183	73	39.9
10	한국교원대	418	158	37.8
11	고려대	405	150	37.0
12	조선대	350	128	36.6
13	홍익대	160	58	36.3
14	대구대	650	233	35.8
15	전북대	225	80	35.6
16	충북대	255	85	33.3
17	제주대	121	40	33.1
18	성신여대	174	57	32.8
19	중앙대	212	65	30.7
20	인동대	138	38	27.5

23	서울대	402	90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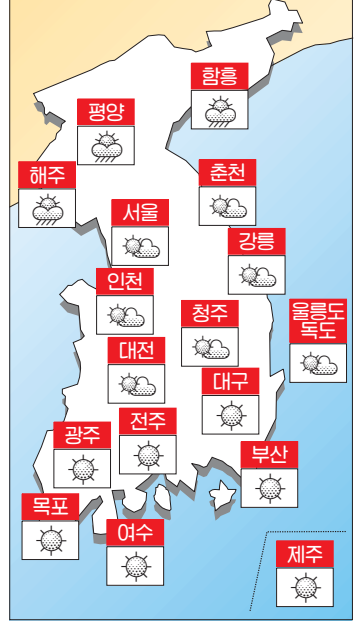
36	연세대	114	10	8.8
총계		13,040	3,535	27.1

여전히 따가운 햇살 10월 10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음 8월 19일) ◇전국날씨

10월 10일 날씨

서울	구름조금	16~26°C
부산	구름조금	17~25°C
대구	구름조금	19~25°C
인천	구름조금	17~26°C
대전	구름조금	13~28°C
광주	구름조금	14~27°C
제주	구름조금	14~27°C
울릉도	구름조금	14~27°C
독도	구름조금	12~27°C
목포	구름조금	16~26°C
여수	구름조금	16~27°C
전주	구름조금	16~27°C
창원	구름조금	16~27°C
대구	구름조금	16~27°C
부산	구름조금	16~27°C
전주	구름조금	16~27°C
광주	구름조금	16~27°C
제주	구름조금	15~26°C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북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3:51 썰물 < 09:01
여수 밀물 < 11:03 썰물 < 04:29

▲해돋이 06:34 ▲해질 18:05 ▲달돋이 19:58 ▲달질 10:05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씨						
최저/최고	15/24	12/24	13/24	13/24	13/25	12/24

가을철 잦은 안개 왜?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8월)가 지난 뒤 국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며칠째 전 지방기상청은 전남에 이어 10일 예도 광주·전남에 이른 아침 가시거리(可視距離) 7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으로 예상했다. 이번 안개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내륙에 머물면서 발생하고 있다. 안개는 북서쪽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접근하는 11일쯤 사라진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안개는 매우 작은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 있는 현상으로, 관측지점으로부터 1천m 이내의 목표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말한다. 보통 새벽에 잠깐 나타났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복사안개'(輻射霧)가 흔하다. 복사안개는 지표면의 복사냉각에 의해 지표와 가까운 공기가 냉각돼 생기는 안개로, 바람이 없고 맑은 날

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찬 지표면 위를 이동할 때 그 하층부가 냉각돼 생기는 것으로, 주로 해안지방에서 발생한다. <안개 영향>=광주 공항의 경우 ▲가시거리 800m ▲운고(雲高·구름 밑부분의 고도)가 60.60m를 넘어야 이·착륙을 할 수 있다. 활주로 양쪽 끝·중간 등에 설치한 '아모스'(AMOS) 장비로 이를 측정한다. 이 장비는 구름 높이·운도·바람방향·속도·활주로 가시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안개가 낀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는 게 좋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류안개 생성과정

따뜻하고 습한 남풍 → 찬 지표면 → 안개

찬 지표면 따뜻한 남풍

찬 지표면

안개

찬 지표면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a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맡아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 카탈라 인과비
- 신도통 쿨 증언대
- 타이틀 증언대

고객을 위한 연락처
080-022-2290 (주식) 059-3830 (주요) 059-3830

국제약품이, 키움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은 사람과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